

빈곤아동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Influencing the Emotional Problems of Impoverished Children

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
전임강사 신인순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won Science College

Full-time Lecturer : Insoon Shi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방법 | References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emotional problems, the related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of impoverished children with those of enriched children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related factors, and to suggest practical interventions and the functions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458 students in the 4th, 5th and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impoverished children had more emotional problems compared with enriched children. Second, poverty was found to influence the emotional problems of children. Third, concerning the relation between a family's poverty and the emotional problems of children, the finding is that eating habits, parents' health problems and marital conflict are mediating-factors.

주제어(Key Words) : 빈곤 아동(children in poverty), 정서문제(emotional problem), 매개효과(mediating effect)

I. 서론

빈곤가구에서 출생함으로써 빈곤한 일상 속의 사회적 배제를 겪게 되는 빈곤아동들은 빈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보다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태도,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 지역사회 특성 등을 통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Jung & Oh, 2008). 부모들이 주로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아동은 다양한 영역의 역기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빈곤아동들은 성취가 낮은 또래 집단과 상호작용을 하고 열악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습관을 학습하기도 한다. 빈곤아동의 정서 역시 빈곤의 영향으로 인해 부정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타의 영역보다는 빈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보고도 있다(Park, Jung, & Ku, 2006).

아동에게 있어 신체적인 건강은 일생을 살아가는 기초자산이 되며, 인지적 발달은 성인기를 준비하는 아동기 과업으로 교육적 성취를 이루게 하는 기본 요소이다. 반면에 아동기의 정서적인 안정을 통해서 여타 영역이 더 활발하게 발달할 수 있음을 볼 때, 아동기의 성취와 성인기로의 바람직한 이행을 위해 정서문제를 미연에 감지하고 개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서적 발달이 미흡한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나 유의미한 타자와의 관계맺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으므로, 빈곤아동의 정서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면에서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조기투자론에 따르면 같은 비용의 인간자본(Human Capital)이 투자되어도 되돌아오는 효과는 0-3세, 취학 전 4-5세, 학령기, 후기학령기로 갈수록 급감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사회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Heckman, 2008).

그러나, 아동의 경우는 가구의 빈곤을 개선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우므로, 빈곤이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것보다 오히려 빈곤과 정서와의 관계에서 이를 매개하는 요인에 의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여 개입의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의 결과로 빈곤아동의 정서문제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성조숙(Sexual Maturation), 식습관, 정적인 생활습관(sedentary lifestyle), 부모의 부부불화, 부모의 건강문제, 운동, 위생, 자존감, 부모의 양육행동을 설정하고, 빈곤아동의 정서문제에 대한 이들 관련요인을 조사 분석하여, 빈곤아동과 비빈곤 아동의 정서문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빈곤이 아동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빈곤이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이를 매개하는 요인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빈곤아동과 비빈곤 아동의 정서문제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빈곤은 아동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빈곤과 아동 정서의 영향 관계에서 어떤 요인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빈곤아동

각종 자료들은 우리나라의 빈곤 아동을 대략 100만여 명으로 추산한다. 2008년도에 18세 미만의 전체아동은 1,090만 명이고, 이들 중 빈곤아동은 절대빈곤율 5%를 적용하면 52만 명, 상대빈곤율 9.7%를 적용하면 113만 명에 달하였다(Kim, 2008). 만9~12세의 빈곤 아동은 상대적 빈곤율 8.4%를 적용하여 216,408명이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 빈곤선을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하여 뽑은 아동빈곤율은, 1996년도에 9.4%이던 것이 1998년 IMF 시기에 11.0%로 기록되고 2002년에는 다시 9.8%로 측정되었다. 게다가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올라서는 빈곤 탈출율이 6%에 불과하므로 사회계층이동(social mobility)의 기회가 낮아, 빈곤은 세습되는 경향까지 나타내 보이고 있다(Kim, 2004).

빈곤은 아동의 적절한 성장발달과 바람직한 적응은 물론 주도적인 성취를 방해한다(Shin, 2011). 빈곤이 야기하는 광범위한 위험요인은 아동에게 전반적으로 부정적 경험을 제공하고, 신체, 인지, 심리, 사회적 전 영역에 걸쳐 취약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빈곤 아동은 사망율, 이환율, 병원입원일수 등의 지표를 통해 전반적으로 낮은 신체적 건강수준을 보이고, 인지발달 지체와 학습장애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학년 유급이나 학교정체가 많고, 학업성취는 저조하며, 우울, 불안, 의존성과 같은 내재화 문제는 물론 반사회적 행동, 과잉행동, 또래갈등, 고집 센 행동과 같은 외현화(externalizing) 문제를 나타내고, 학대와 방임에도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oks-Gunn & Duncan, 1997, quoted in Kong, Park, Oh, Lee, & Lee, 2006; Bradley & Whiteside-Mansell, 1997, Brooks-Gunn & Duncan, 1997, McLoyd et al, 1994, quoted in Park, 2008; Kim, 2006; Kim & Kim, 2008; Ku, 2003; Ku, Park, Jung, & Kim, 2009).

2. 빈곤아동의 정서문제

빈곤아동의 정서는 빈곤의 영향으로 인해 부정적인 양상

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회정서적인 발달은 인지 영역에 비하면 빈곤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한다(Park et al. 2006). 심지어 2003년 아동복지학회 조사는 빈곤이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설사 빈곤이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빈곤 자체가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 이를 매개하는 요인이 무엇인가가 더 예방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하므로 의미를 갖는다고 볼 것이다. 예를 들어, 가정환경 역경이 청소년의 학교적응, 내재화(internalizing) 문제,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자아강도, 부모와의 애착 등 보호요인이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는 Shin(2003)의 연구를 참고하면, 자아강도나 부모와의 애착에 개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이는 최소한 가족소속을 올리는 개입보다는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의 실효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내재화 문제에는 장기적인 빈곤이, 외현화 문제에서는 장기빈곤보다 오히려 현재의 빈곤이 더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McLeod와 Shanahan(1993)의 연구와 Korenman 외(1995)의 조사는 빈곤의 시거나 기간에 따라 아동의 정서문제가 달리 나타남을 시사해준다(Jung, 2010).

3. 아동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가정과 부모는 아동복지의 전제조건이 되고 아동발달의 기본이 될 뿐 아니라 부모의 부부불화, 부모의 건강문제, 부모의 양육태도 등을 통해 아동의 정서문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빈곤 가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결손과 부모불화의 영향 정도를 비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에 대하여 가족구조양상보다는 부모불화 정도가 더 높은 예언력을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가정의 구조적 결손 자체보다는 부모불화로 인한 적대적 가정 분위기가 가정의 기능적 결손을 초래하여 청소년들의 우울과 불안, 비행행동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Lee & Kim, 1993). 부부간 불화가 있는 부모의 자녀는 외현화 점수가 높았으며(Kim, 2004), 부부불화, 무관심, 대화빈곤 등의 기능적 결손을 가진 가정의 자녀는 정상가정 자녀보다 감성지능이 낮았다(Song, 2003).

가족은 천성과 양육이, 유전과 환경이 아동에게 집약되는 지점이고, 부모의 건강문제는 유전과 생활습관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 Merten(2005)은 가정환경,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건강이 모든 구성원의 정서와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건강은 아동의 모방을 통해서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부모의 건강문제는 가족의 기능적·내용적 결손을 야기하여 자녀의 성장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의 교육이나 수입보다도 아동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Heckman, 2008). 스트레스 완충의 보호적 자원 또는 위험요인을 탐색할 때 주로 활용되는 사회환경요인 중의 하나는 부모와 자녀 간 관계의 질이다(Wolchik et al., 2000, quoted in Jung & Lee, 2006). 부모와 자녀간 관계의 질은 대개 부모의 양육태도로 측정되며,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하위기능으로 언급되는 것은 부모와의 애착관계와 부모의 지도감독이다(Jung & Lee, 2006; Lee, 2008) 부모의 지도감독은 자녀의 행방에 대한 전반적인 주의를 의미하고, 아동이 갖는 부모에 대한 애착은 애정적 결속, 존경심, 동일시의 정도를 나타내며, 아동을 비행으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여타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보호요인이 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Park, 2008). 또한,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등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대해서도 가정환경 역경 변인이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모와의 애착과 같은 보호요인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hin, 2003).

부모나 가족차원이 아닌 아동 개인의 차원에서 아동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존감을 들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자신에게 갖는 일련의 가치판단에 대한 태도로,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기조절, 자기결정, 자율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을 경우, 아동은 자기통제능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환경적 요구가 기대하는 대로 자신의 충동이나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Jung, 2006, quoted in Park, 2008).

아동의 생활습관도 아동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운동의 기회는 갈수록 줄어들고 텔레비전 시청, 비디오 게임, 인터넷 사용 등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정적인 생활습관' 이 늘어난다. 아동의 사회성 등 정서와 관련해서는 정적인 생활습관 중에서도 주로 인터넷의 사용이 우려를 낳고 있다. Lee, Choi, Shin과 Jang(2008)은 인터넷 중독이 심할수록 공격성이 상승하고 학교적응과 또래관계는 낮아진다는 결과를 내었고, Ko(2007)는 지역아동센터 여학생이 외모나 신체에 대해 문제를, 남학생은 인터넷이나 게임 등의 무절제에 대해 상담을 원하는 응답의 비중이 높았음을 보고하여, 각각 성별로 상담 욕구가 상이하지만, 많이 앉아 있는 생활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대안은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다. Song(2008)은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아동과 일반 아동을 비교한 연구를 통해 빈곤아동이 규칙적 운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38.8%로, 일반 아동의 실천율 53.8%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고 보고하였다. 태권도, 승마 등 각종 운동이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거듭 확인되고 있다.

Ryu(2009)는 빈곤 부자가정의 유아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제대로 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여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부적응행동을 하며 위생과 건강상태가 불량함을 관찰하였다. 빈곤아동을 둘러싼 취약한 위생상황과 청결하지 못한 외모는 아동의 성장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또래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Min(2009)은 식습관이 좋고 편식을 하지 않으며, 식사 위생, 식사 예절이 좋은 영유아일수록 공격적 행동, 반항적 행동, 정서 불안 행동, 미성숙 행동, 위축 행동, 그리고 전체 문제 행동을 적게 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고, Kim(2010)은 식사의 규칙성과 외식빈도, 음료 섭취횟수, 음주 및 흡연과 관련된 요인들이 성인의 식습관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Jo(2009)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식습관과 정서 관련 연구로 식행동이 인성특성과 학업적응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아동의 2차 성징도 청소년기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의 발달은 연대기적 나이보다 신체학적 나이가 더 대표적이므로 같은 연령이라고 해도 개별 아동의 성적인 성숙은 편차가 날 수밖에 없다(Fontanive, Salles da Costa, & de Abreu Soares, 2002).

Forbes와 Dahl(2010)은 사춘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연구결과를 통해서 성조숙이 신체적인 성장 외에 사회적인 맥락에서도 아동에게 행동적 정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지적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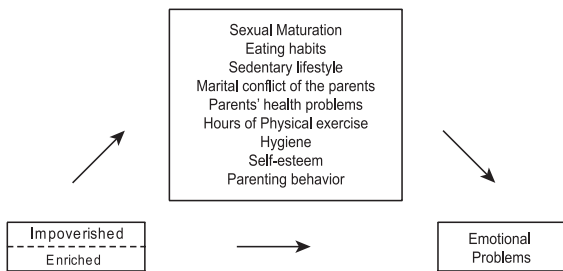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2.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는 수도권 4, 5, 6학년 아동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비확률표집방법 중 이용가능표집으로 하였다. 빈곤아동은 2010년 현재 전국 161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아동 중 접근성을 고려하여 경기남부 일대 심의 통과 지원 대상 아동(고양, 광명, 의왕, 평택, 오산, 군포,

이천, 서울은평, 용인, 하남, 인천, 안양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소속 지원 대상 빈곤 아동)의 설문 294부만을 활용하였다. 이들 조사대상 빈곤아동은 방과후 아카데미 소속 아동이어서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권자, 차상위 수급권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학교 급식지원대상자 및 실업상태의 보호자를 둔 아동들로 구성되었고, 최소한 학교의뢰서류에 의해 입소심의를 통과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대상 아동에 한하였다. 빈곤 아동은 대표적 중산층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일반 아동으로 교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하였다. 빈곤 아동의 설문은 용인 수지, 안양 평촌, 서울 이촌동의 3개교 5개 학급 164부를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2010년 6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약 90일간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의 설문 495부를 회수하였고, 이중 부적합한 37부(주로 혼합형 방과후 아카데미의 자부담 아동 설문)를 제외하고 나머지 총 458부에 대한 자료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 아동의 정서문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문제를 외현화(공격성, 충동성)문제와 내재화(우울, 불안)문제를 통해 평가하였다. 문항은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V 중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2004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적조사)을 대상으로 한 설문문의 내용 중 우울, 불안, 충동, 공격에 관한 것을 발췌하였다. Cronbach's α 값은 .831이었다.

2) 독립변수

측정 방식은 대부분 5점 리커트 척도로 답하게 되어 있고, 각 하위항목의 총합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운동시간의 경우만 1일 평균 운동시간을 질문하여 분으로 환산하고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① 식습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용 식습관 질문지를 발췌하여, 지난 1주일 동안 아동의 아침식사 결식, 바람직하지 못한 간식의 섭취, 야채와 과일 섭취, 식사속도, 폭식, TV보면서 식사하는 습관 등을 질문하였다(Kim, 2008).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71이었다. 그 외에 빵이나 라면으로 식사를 대체하는지, 식품을 살 때 건강보다 가격을 고려하는가 하는 가격탄력성을 추가 질문하였다. 아동이 가족의 음식을 구매하지는 않으나 아동의 매식의 기회가 늘어나는 사회현상과 함께 아동이 음식구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Park, 2010). 또한 24시간 회상법에 의한 식이섭취형태 연구는 결과 상 유의적인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을 잘 기억해보고 응답하도록 하였다(Lee et al., 2009).

② 정적인 생활습관

일반적으로 '앉아있는 생활습관'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개념으로 긴 좌식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에 원인으로 주목받는 개념이다. 하루 평균 컴퓨터 사용시간과 TV 사용시간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③ 성조숙

An(2009)은 사춘기 신체적 변화와 심리·사회적 특성 및 학교적응도와의 관계를 조사하면서 남자 아동의 변성 여부와 수염 등을 물었고, 여자 아동에게는 초경과 가슴 발달 등을 질문했으며, Park(2009)은 청소년의 골성숙 경향과 생활환경 관련 및 성인 신장 추정 연구에서 남자 아동의 경우 검은 털, 여자 아동은 초경 여부를 물었다. Shi, Lien, Nirmal Kumar, Dalen과 Holmboe-Ottesen(2005)도 사춘기의 시작을 나타는 목젓이 생기는 것으로 측정하고, 여자의 경우 초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 연구와 마찬가지로 2차 성징의 징표로 여아의 경우는 초경을 질문하고, 각 연구마다 상이한 질문을 사용하고 있는 남자 아동의 경우, 변성 여부와 목젓이 생긴 시기를 함께 중복 질문하였다.

④ 부모 부부불화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V 중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2004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적조사)을 대상으로 한 설문 중에서 발췌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주 싸우신다.' '우리 부모님은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 편이다'를 5점 척도로 질문하고, 이를 평균 내어 사용하였다.

⑤ 부모 건강문제

Park(1998)은 부모의 알콜중독, 정신분열증, 우울증 등의 부모 정신병리 문제, 부모나 가족의 만성질환과 같은 신체적

건강문항을 측정하였고, Cronbach's α 값은 .62 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만성질환, 정신 건강, 신체적 장애를 묻는 질문을 차용하고, 부모의 비만여부와 움직이기 싫어하는 생활습관 등을 추가 질문하여 총 5개 문항의 질문을 통해 아동을 둘러싼 가족 건강의 유전적, 환경적 상황을 알아보았다.

⑥ 운동시간

하루 평균 운동시간을 질문하였다.

⑦ 위생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교사의 설문지를 통해서 5점 척도로 아동의 객관적 위생수준을 파악하였다.

⑧ 자존감

Harter(1982)가 개발한 아동용 자기지각 척도(Harter's Self 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H-SPPC)를 Park(1995)가 번안해 표준화한 학업영역, 사회적 영역, 운동적 영역, 신체적 영역, 행동적 영역, 전반적 자아가치감 등 6개 영역의 자존감 중 전반적 자아가치감(General self-worth)과 신체적 자존감(Physical appearance)만을 Shin(2006)의 석사논문에서 발췌하였다. 하위 영역들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71~.81이고,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값은 .90이다.

⑨ 부모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중요한 하위기능으로 언급되는 것은 부모와의 애착관계와 부모의 지도감독이다(Lee, 2008). 부모와의 애착관계 6문항, 부모의 지도감독 5문항 등 부모양육행동 총 11문항은 Yeo(2009)의 논문에서 참고하였다. 이중 부모 애착 문항은 주로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 방식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되어 있다. Cronbach's α 값은 .90이었다. 부모의 지도감독은 자녀가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Lee, 2009). 부모의 자녀에 대한 외적인 감독이라기보다 청소년이 의식하는

Table 1. Gender & grade of study object

Variables	Total		Impoverished Children		Enriched Children		
	frequency (number of persons)	Rate(%) (number of persons)	frequency (number of persons)	Rate(%) (number of persons)	frequency (number of persons)	Rate(%) (number of persons)	
Gender	F	236	51.5	159	54.1	77	47.0
	M	222	48.5	135	45.9	87	53.0
	Total	458	100.0	294	100.0	164	100.0
Grade	4	88	19.2	54	18.4	34	20.7
	5	201	43.9	130	44.2	71	43.3
	6	169	36.9	110	37.4	59	36.0
	Total	458	100.0	294	100.0	164	100.0
Total Rate		100%		64.2%		35.8%	

부모의 존재를 나타내고 이것은 청소년들의 행동을 내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Cronbach's α 값은 .89였다.

3)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2010년 6월 15일 오산지역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아동 33명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조사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문항이 의도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문항과 응답자의 빈도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문항에 대해서는 표현방법을 수정하거나 본 조사에서 제외시켰다. 구체적인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문항 간의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는 Cronbach's α 값을 구했다. 정서문제는 .857이었고, 나쁜 식습관은 .671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부부

불화는 .673이었다. 부모의 건강은 .691이었고, 자존감은 .888이었으며, 부모양육행동은 .835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이 신뢰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18.0 for Window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빈도분석을 하였다.

둘째, 식습관, 부부불화, 부모 건강문제, 자존감, 부모양육행동, 정서문제 등을 평가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

Table 2.
Comparative analysis of emotional problems of children in poverty & non-poverty

Variables	Impoverished Children (N = 294) Mean / SD		Enriched Children (N = 164) Mean / SD		t	p
Emotional Problems	2.5867	.85207	2.2464	.66667	-4.728	.000
Aggression	3.0754	.99719	2.8506	.92982	-2.369	.018
impulse	2.3679	1.10932	2.0082	.95936	-3.628	.001
anxiety	2.6183	1.01475	2.2720	.85606	-3.870	.000
Depression	2.2770	1.24139	1.8374	.96846	-4.189	.000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ain variables

Total	Sexual Maturation	Eating habits	Sedentary lifestyle	Marital conflict of the parents	Parents' health problems	Parenting behavior	Hours of Physical exercise	Hygiene	Self-esteem	Emotional Problems
Eating habits	.050									
Sedentary lifestyle	.071	.251**								
Marital conflict of the parents	.073	.157**	.147**							
Parents' health problems	.061	.149**	.046	.329**						
Parenting behavior	-.094*	-.313**	-.165**	-.305**	-.200**					
Hours of Physical exercise	-.041	-.015	.044	.023	-.031	.035				
Hygiene	.021	-.247	-.084	-.055	-.241**	.155**	-.089			
Self-esteem	-.150**	-.261**	-.089	-.200**	-.087	.317**	.104*	.014		
Emotional Problems	.069	.450**	.150**	.299**	.233**	-.321**	-.035	-.171**	-.426**	
Poverty	.045	.262**	.251**	.297**	.196**	-.229**	.037	-.357**	-.084	.202**

* $p < .05$, ** $p < .01$

Table 4.
Mediating effect of third variables on poverty & emotional problems

Total Effect : X → Y (c) : Poverty(P) → Emotional Problems(E) : .3495***(.0816)					
Direct Effect C' (C Prime) .0206(.0808)					
Step1: X → M	(a)(SE)	Step2: M → Y	(b)(SE)	Step3: Indirect Effect: X → M → Y	(ab)(Bootstrap S C)
P → Sexual Maturation	.0203(.0334)	Sexual Maturation → E	-.0560(.1035)	P → Sexual Maturation → E	-.0009(-.0174, .0033)
P → Eating habits	.3829***(.0654)	Eating habits → E	.3634***(.0567)	P → Eating habits → E	.1398(.0821, .2166)
P → Sedentary lifestyle	84.4302***(.17.2497)	Sedentary lifestyle → E	.0001(.0002)	P → Sedentary lifestyle → E	.0058(-.0218, .0436)
P → Marital conflict of the parents	.6684***(.1092)	Marital conflict of the parents → E	.0997***(.0341)	P → Marital conflict of the parents → E	.0679(.0152, .1273)
P → Parents' health problems	.2998***(.0704)	Parents' health problems → E	.1187*(.0521)	P → Parents' health problems → E	.0343(.0024, .1077)
P → Hours of Physical exercise	7.9996(7.0410)	Hours of Physical exercise → E	-.0002(.0005)	P → Hours of Physical exercise → E	-.0015(-.0199, .0051)
P → Hygiene	-.7935(.0921)	Hygiene → E	-.0365(.0383)	P → Hygiene → E	.0290(-.0354, .0949)
P → Self-esteem	-.1119(.0809)	Self-esteem → E	-.2692***(.0459)	P → Self-esteem → E	.0305(-.0088, .0825)
P → Parenting behavior	-.3928(.0783)	Parenting behavior → E	-.0646(.0484)	P → Parenting behavior → E	.0261(-.0134, .07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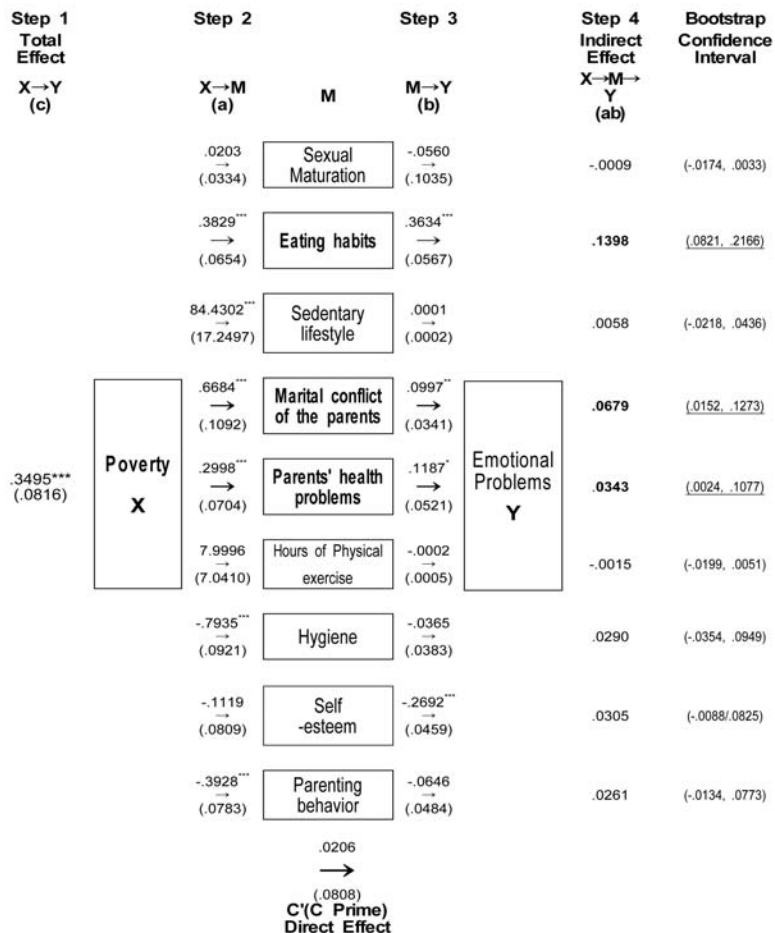


Figure 2. Mediation model on poverty & emotional problems.

출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셋째, 빈곤아동과 비빈곤 아동의 정서문제를 성별, 학년 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t*-검정과 교차분석을 하였다.

넷째, 회귀분석의 선행분석으로서 다중공선성과 전반적 관계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다섯째, 빈곤이 아동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스크립트를 사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빈곤아동 294명과 비빈곤 아동 164명의 정서문제 점수 차이를 *t*-검정한 결과, 공격성, 충동성 등 외현화 문제와 우울, 불안 등 내재화 문제가 모두 빈곤아동에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변수들을 평균 내어 측정된 빈곤아동의 전반적 정서문제 역시 비빈곤 아동의 정서문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변수 간 상관관계

회귀분석의 선행분석으로서 다중공선성과 전반적 관계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빈곤과 아동 정서문제의 영향관계에 미치는 제 요인의 매개효과

첫 번째 회귀모형에서는 독립변인인 가구 빈곤이 종속변인인 아동의 정서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모형에서 확인된 회귀계수 .3495는 빈곤이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효과(c)이다. 1단계로 빈곤이 식습관($\beta = .3829$), 정적인 생활습관($\beta = 84.4302$), 부모 부부불화($\beta = .6684$), 부모 건강문제($\beta = .2998$), 위생($\beta = -.7935$), 부모의 양육행동($\beta = -.3928$)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인다. 2단계, 아동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식습관($\beta = .3634$), 부모 부부불화($\beta = .0997$), 부모 건강문제($\beta = .1187$)와 자존감($\beta = -.2692$)이 확인되었다. 3단계로 빈곤과 아동 정서문제 간의 영향관계에 대해 스크립트를 사용하고 부트스트래핑으로 신뢰구간을 확인한 결과, 신뢰구간 내에 0이 없는 아동의 식습관($\beta = .1398$), 부모 부부불화($\beta = .0679$), 부모 건강문제($\beta = .0343$)이 매개변인으로 확인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결과

본 연구는 빈곤아동의 정서문제와 관련 요인을 비빈곤 아동과 비교하고 정서상의 차이와 제 요인의 영향을 파악하여 실천적인 개입과 역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수도권 빈곤 비빈곤 아동 15개 기관 458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아동은 비빈곤 아동에 비해 정서문제가 더 많았다.

둘째, 빈곤은 아동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가구의 빈곤이 아동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로 식습관, 부모의 부부불화, 부모의 건강문제가 확인되었다.

2. 연구의 함의

첫째, 빈곤이 아동정서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 없다, 상대적으로 적다’ 등 다양한 연구결과가 공존하고 있지만, 본 연구 결과는 신체적 건강(Shin, 2010)이나 과제중(Shin, 2011)과 마찬가지로 정서문제 또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연구의 결과, 빈곤과 정서문제 간의 매개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식습관은 ‘변화가 가능 요인’이므로 우선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빈곤을 완화시키고, 부부간의 불화를 줄이며, 부모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아주 작고 단순한 실천의 습관화라도 개선될 수가 있는 아동의 식습관은 교사나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가 일상 속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비용효율적 요인이다.

셋째, 방과후 교실이나 학교는 식사시간을 단순한 배식의 시간으로 삼기보다 예절을 학습하고 소통하는 문화의 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식사를 하는 것은 단순한 칼로리의 섭취나 영양소의 흡수를 넘어 음식의 내용, 준비와 정성, 함께 하는 분위기, 대화를 포함하므로, 바람직한 식습관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빈곤과 정서문제의 영향관계에 간접효과를 나타낸 ‘부모의 건강문제’와 ‘부부불화’는 생태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부모를 비롯한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빈곤아동의 정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다섯째, 빈곤과 아동의 정서문제를 매개하는 요인을 찾는 과정에서 빈곤과 아동의 정서문제간의 영향관계 전체효과를 1단계로 찾아내었다. 이는 빈곤이 아동의 정서문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 낸 것으로 탈빈곤 정책, 빈곤 완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변한다. 변화가능한 부분에서 예방적 실천을 하고자 하는 실천현장의 소소한 노력과는 별개로

빈곤완화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만 빈곤아동의 정서문제는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한계점

첫째, 횡단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종단연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제3의 변수로 지역사회적 요인 보다 주로 근거리 요인(개인과 가정환경적 요인)을 사용하였다. 향후 지역사회의 원거리 요인을 폭넓게 연구하면, 더 큰 실천적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모집단을 전국으로 삼지 않고 수도권 일대에 국한시킨 점은 일반화에 어려움을 주는 한계이다.

Reference

- An, E-M. (2009). Relationship among Physical Change in Adolescenc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nd School Adap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Fontanive, R. S., Salles da Costa, R., & de Abreu Soares, E. (2002). Comparison between the nutritional status of eutrophic and overweight adolescents living in Brazil. *Nutrition Research*, 22(6), 667-678.
- Forbes, E. E., & Dahl, R. E. (2010). Pubertal development and behavior: Hormonal activation of social and motivational tendencies. *Brain and cognition*, 72(1), 66-72.
- Heckman, J. (2008). Schools, Skills and Synapses. *Economic Inquiry*, 46(3), 289-324.
- Jo, M-B. (2009). A Study on the effects of eating behavior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n Academic adaptation for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certain regions of Busa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Korea.
- Jung, I-J., & Oh, J-S. (2008). Child Welfare. Seoul: Hakjisa
- Jung, J-H. (2010). pathways of poverty on children's developm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Y-O., & Lee, M-G. (2006). Parental attitudes and fear of abandonment as stress buffering moderators on children of divorce. *Korean Psychology: Health*, 11(4), 689-708.
- Kim, A-H.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children's impulsiveness and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Daegu, Korea.
- Kim, D-I. (2004) Openness and labor market changes in Korea. Seoul: Publish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J-H. (2010). A study on the Stress and Food habit of Adults in Uls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Ulsan, Ulsan, Korea.
- Kim, K-H. (2006). Process Analysis of Poverty Influences on Academic Attainment of Childr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8(4), 265-289.
- Kim, Y-J. (2008). The effect of Obesity Management Program on related factors of Obesity, Depression and Body image in obese and overweight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S., & Kim K-H. (2008). Process analysis of poverty influencing on child abuse and neglect -Analyzing mediating effect of parent's depression and family relationship.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7(5), 847-859.
- Ko, M-H. (2007). Analysis of Actual Counseling Status and Need for Counseling at Community Children Center(Study Room): Focused on the Kyunggi A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Seoul, Korea.
- Kong, K-S., Park, H-S., Oh, S-H., Lee, S-G., & Lee, H-J. (2006). Child Welfare. Seoul : Hakjisa.
- Ku, I-H. (2003). The Effect of Family Background on Adolescents Educational Attain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2, 5-32.
- Ku, I-H., Park, H-S., Jung, I-J., & Kim, K-H. (2009). A Pane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Child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1(1), 57-79.
- Lee, G-Y., Choi, S-Y., Shin, S-C., & Jang, S-H. (2008). Effect of Internet Addic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on Peer Relationship, Their School Adjustment, and Peer Aggression: The

-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Research of Youth in Future*, 5(4), 111-133.
- Lee, J-S., Kim, J-S., Hong, H-K., Jang, Y-A., Park, S-H., & Son, Y-A., et al. (2009). A Comparison of Food and Nutrient Intakes between Instant Noodle Consumers and Non-Consumers among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Korean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42(8), 723-731.
- Lee, M-S, & Kim, T-M. (1993). 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Marital Discord on Children's Maladjustment. *Korean Psychology: Development*, 6(2), 201-216.
- Lee, S-G. (2008).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arenting Behaviors on the Relation between Deviant Peer's Influences and Delinquency in Adolescenc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7, 121-151.
- Lee, S-G. (2009). Parallel Process Latent Growth Modeling of Parent Influences on Delinquent Behaviors in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7, 243-266.
- Meyer, A. M. (2007). Sedentary behavior and physical activity: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modern lifesty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Epidemiology, Carolina, USA.
- Merten, M. J. (2005). Community, family, and individual factor influencing adolescent obesity: Mediating role of parental health and the social and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obesity in young adulth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Iowa, USA.
- Min, I-J. (2009). Study of Eating Behavior and Food Preference in Young Children: Differences by Age and Gender. *Journal of East Asia Society Dietary Life*, 19(5), 659-667.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nual Report. Seou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Park, H-S. (1998). The School resilience of Korean adolescents in pover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H-S. (2008). Effects of Poverty Status on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Childhood.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6, 113-137.
- Park, H-S., Jung, I-J., & Ku, I-H. (2006). Adult-role Burdens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Pover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8, 303-330.
- Park, J-Y. (2010). The effects of the dietary life of mothers on their children's health-related fa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wangju, Korea.
- Park, S-H. (2009). (The)inclination of youth's skeletal maturation, the relation of living environment and estimation adult's heigh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oong University, Pusan, Korea.
- Ryu, Y-S. (2009). Case study on preschool intervention for poor single father fami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Seoul, Korea.
- Shi, Z., Lien, N., Nirmal Kumar, B., Dalen, I., & Holmboe-Ottesen, G. (2005). The sociodemographic correlates of nutritional status of school adolescents in Jiangsu Province, China.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7(4), 313-322.
- Shin, I-S. (2010). Risk or Protective Factors for the Physical Health of Children in Poverty. *Social welfare Review*, 15, 5-33.
- Shin, I-S. (2011). Risk or Protective Factors for the Overweight of Children in Poverty. *Youth Culture Publishes Forum*, 27, 62-92.
- Shin, N-Y. (2006). Association among Obesity,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Shin, H-S. (2003). Adolescent resilience to family adversity: Tes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protective factors. *Korean Counselling Research*, 11(2), 71-84.
- Song, H-Y. (2003). Comparison of Students EQ among Formally-Broken, Functionally-Broken and Normal Hom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Korea
- Song, J-S. (2008). Analysis Survey on Health Status of Disadvantage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Yeo, H.J. (2009). Longitudinal Explor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and Delinquents' behaviors by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and Deviant Peer's Influenc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Kwangwoon, Korea.

접 수 일 :	2011년	8월	30일
심사시작일 :	2011년	9월	7일
게재확정일 :	2012년	5월	28일